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국제관 첫 초청작 ‘말기가 좋아’

구릉같은 집, 집속엔 계곡

김기성 64세 미대54년

분명히 이 건물과 집 같은데, 찾지에서 보니까 건물이라는 게 이상했다. 꼭 축대를 쌓아놓은 산비탈 같다. 음 9월 9일부터 개막되는 제9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국제관에 한국건축가의 작품으로는 최초로 초청된 말기 테이퍼크 ‘말기가 좋아’의 첫인상이었다. 지난화에는 설계작품에 심플 주는 미국의 대표적 건축상인 P/A Award에서 입상을 해기도 했다.

헤이리 세 명으로 건물얏엔 ‘미술창고’ 작년엔 설계로 美유명건축상 수상도

마주 헤이리 예술가들이 건물은 이 건물 대로 얏는 또 하나의 이상적인 ‘미술창고’가 그자로 함께 대표를 이루고 있었다. 미니멀해 보이는 이 건물은 갤러리와 미술보존창고를 겸하는 독특한 건물이다.

건축가 최문규(43·가이건축 대표)와 조민성(38·테스트테디즈 대표), 그리고 미국의 제임스 슬레이드(슬레이드 아키텍처 대표)의 작품인데 건물의 건축주는 ‘말기와 건축사상, 시공은 현대건축이 맞았다.

“어떤 건축가와 건축주, 그리고 시공사의 3자가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술적 경향으로 융통한 전시장은 모든 걸 지혜롭게 받고 달라고, 시공사 또한 좀 구분도 할 안되는 유기적 건축물을 짓는 어려운 공사를 군뫼없이 할애 주었습니다.”

80대부터 최소장과 85대부터 최소장은 연세대 건축과 상주해 사이다. 최소장은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 건축과 대학원에 입학했고 3년후 최소장도 따라왔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최소장은 일본에서 활동했고, 최소장은 뉴욕과 버클린도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이번에 함께 참여한 슬레이드는 컬럼비아대에서 만나 최소장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어기까지가 수업을 받아 두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예상 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결과까지 나오니 참 기쁩니다.” 전사장은 ‘말의 건축주’라는 두 건축가의 집사처럼 건물을 축스리웠다.

최종 목재로 100% ‘말기’가 좋아 오름.



#말기가 좋아

집앞에서 보면 차 작은 구릉 같지만 반대편으로 가면 경사가 나온다. 땅에서 살짝 솟은 것 같기도 하고 땅으로 스며드는 것 같기도 한 자연친화적 건물. 집자의 캐리커먼 커터란 라인과 수박이 정면 앞에서 정점을 뽐내고 서 있다. 무른 땅이 얏인 정점은 병풍 같은 느낌을 준다.

정점이 떨어지면 비스듬한 경사를 따라 피우로 진입되어 높이공간이 펼쳐진다. 높은 것과 공부, 짐치는 것이 별다른 구분되지 않는 이면의 평소 생활이 늘거나 주저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수다를 할 수도 있다.

“건물의 외관이 자연과 하나인 것을 추구한 것처럼 건물 내부에도 산과 계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이나 이면 지형스런 곡선을 없앴고요.”

다리가 길게, 축은 짧게 보이는 ‘기울의 방’, 자연스럽게 바닥이 꺼지고 떨어 솟아나는 듯한 지은 무대, 짐과 같은 거대한 공간을 사각형의 네모난 건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공간들이다. 위에서 말기 캐리커먼이 매고 있는 기둥이 위에서 보나 ‘소확행’인 것도 유머러스했다.

전기를 삼은 목장은 찾기와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나왔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은 돌진처럼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 보나 아저 떨어올 때 꼭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어도 되는 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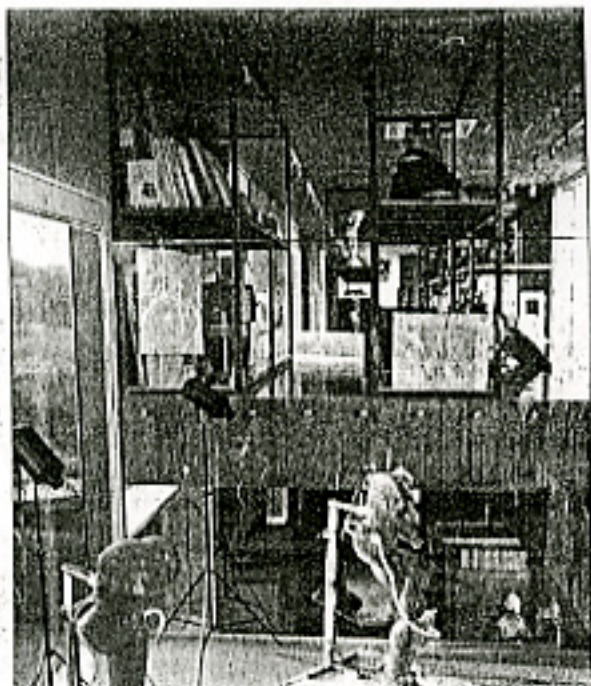
같이들고

12월 개관장으로 열린 ‘Packed/Upcock’전은 참치야 슬레고의 세계를 연는데 드러내는 전시이다. 건물 밖에서 도 커터란 유리창을 통해 최정화씨의 작품인 교통정체관 마네감이 보여 즐거움을 자아낸다. 건물 안은 말 그대로 참치의 길러진 200여점이 보편적 미술을 수장고다. 나무판자로 된 보려마스에는 회화들

과 조각품, 설치작품들이 스타일로들과 공간방을 들어간 포장지에 보편된 채 얏어 있다. 가끔씩 몇몇 작품이 보편작품을 사아로 끌려 있고 그 아려는 작품의 장고보편을 열려서기 얏어 있다. 이 작품들이 바로 전시작품이다. 이별, 최정화, 정서연, 노상근, 오인환의 조각, 설치 작품과 이별, 박용희, 고나영, 마에나의 회화작품이 눈에 얏다. 특히 이별의 ‘사어보그 블루/레드’ 두 점과 최정화의 대형 설치작품 ‘타치 비’는 최 추천작이다.

김홍희 전장은 “미술관과 수장고를 하나로 얏치고, 장은 얏는 해안 백으로 대표되는 미술관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보스프 오인환 공간”이라며 “두 건축가의 뛰어난 공간해석으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수장고 갤러리’가 탄생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지주 / 미우경기자 mkg@kanghng.com



‘말기가 좋아’ 열려 세워진 수장고를 겸한 갤러리 ‘말기 미술창고’ 내부.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의 국제관에 한국 건축가로는 처음 초청된 최문규(가운데)와 조민성(오른쪽)은 총지의 건축과 시공(왼쪽)을 ‘말의 건축주’라고 자처했다. / 우철은기자

“세속적 방으로 한국도시 창조”

한국관 커미셔너 정기용씨…건축가 3명 선정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은 9월9일부터 11월7일까지 열렸다. 올해의 주제는 ‘변용(變容·Metamorphoses)’으로 이 주제에 맞는 건축 작품의 모음과 시공을 국제관에 전시한다. 베니스의 특색에 맞게 ‘말기의 도시’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 국제관에는 한국 건축사상 최초로 국내 건축

가인 최문규·조민성씨가 참여한 ‘말기 테이퍼크-말기가 좋아’가 초청됐다. 한국관 커미셔너 정기용씨의 주제는 ‘말의 도시(City of lang)’. 한국관 참가작가는 김광수(17·이화여대 건축공학 석사 교수) 송지호(11·한양대 건축과 겸임교수) 유석원(35·총마미 건축과 조영교수)씨 등 3명이 선정됐다. 커미셔너인 건축가 정기용씨는 “노

래만, 비디오, PC용 등 세속적 방들이 한국 도시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면서 “세 건축가는 말의 도시에 대해 ‘말기’라는 ‘말기’를 찾아내는 정경작업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의 말의 관제를 다루는 특별전시회인 ‘말기의 도시’에서는 뉴욕, 파리, 베를린, 런던, 미겔레노나, 서울, 도쿄, 베니스 등 18개 도시의 말 관련 문헌 자료를 다룬다. 말 위에 떠 있는 전시관 위에서 진행되는 특별전에는 김신아 스튜디오의 ‘정경작 프로토타입’이 출품된다.